

2024 새해 이렇게

강종만 영광군수

# 영광의 멋과 맛 알려 관광객 1000만명 시대 열겠다



### 전남체전·장애인체육대회 성공 개최 스포츠 메카 위상 높일 것 스마트팜 시설 보급·친환경농업 기반 구축 농업환경 개선 박차

"2024년 영광방문의 해를 맞아 방문객 1000만 명 유치를 목표로 영광의 멋과 맛 알리기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강종만 영광군수는 10일 광주일보와의 신년 인터뷰에서 '영광의 멋과 맛'을 알리는 다양한 관광 콘텐츠 개발 운영으로 관광객 유치에 중점을 두고 힘쓰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강 군수는 이를 위해 온오프라인 홍보를 강화하고 시티투어와 불갑산 관광지 확장, 종교순례 테마관광 명소화 사업 등을 스포츠마케팅과 연계해 특색 있는 관광 아이템을 개발해 1000만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전남 최대 축제인 '제63회 전라남도체육대회'와 '제32회 전라남도장애인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스포츠 메카로서 영광군의 위상을 높이고 문화 관광자원을 연계한 방문객 지역체류

로 지역경제 파급효과도 극대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강 군수는 "군민의 삶에 희망을 주는 행복한 복지 공동체를 만들고 인구감소에 대응해 청년창업·육아통합 지원센터를 거점으로 활용하면서 장애인 복지타운도 증축해 장애인 취·창업 전문교육 지원센터 효율적 운영으로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겠다"며 "저소득층 암 검진비 지원과 치매통합 돌봄 서비스 구축, 취약노인 돌봄·응급체계 구축 등 어르신 돌봄을 강화하는 한편 노인일자리와 시니어클럽 운영을 확대해 모든 계층이 행복한 삶을 추구할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정부의 긴급재정 위기 속에서도 국비 1101억원을 포함해 총사업비 7877억원과 특별교부세 128억원을 확보해 영광군의 주요 현안 사업을 가능하게 했다. 이는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자치경연대전 대통령표창과 지방불가 안전

관리 '가등급',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3년 연속 2등급 달성 등으로 대내외에 군의 위상을 높인 점이 바탕이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잇단 농촌협약 사업과 지역개발 투자선도지구 등 민선8기 대규모 공모사업 선정으로 858억원의 외부재원을 확보한 것은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고 했다.

강 군수는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으로 위험도로 구조개선, 버스승강장 스마트 태양광 조명등 설치 등을 통해 안전한 교통환경을 만들고, 식수전용 저수지 신설과 정수장 개량, 폐기물 배출방식을 개선해 생활폐기물 감량하고 재활용률을 높이는 한편 이동식 약취시로 자동채취차량을 운영해 환경오염 감시활동을 강화해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정정도시 구축을 위해서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급변하는 농업여건에 대응해 청년농업인 육성, 스마트팜 시설 보급, 친환경농업 기반 구축 등 농업환경을 개선하고, 농수산물 통합 중계물 구축과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건립 등을 통해 지

역 먹거리 기반을 확충해 소비 진작을 통해 농가 경영안정과 소득증대에도 노력할 방침이다.

축산분야에서는 ICT 융복합지원과 시설 현대화로 스마트 축산환경을 조성하고, 가축질병 예방과 축산물 안전성 관리를 강화해 지역과 상생하는 청정 축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는 구상이다.

그는 또 "군민과 소통하는 현장중심의 혁신 행정을 위해 군민과 함께하는 보이는 라디오, 군수와 군민과의 대화, 주민 참여 예산운영 등 현장중심의 행정운영을 통해 군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군정에 반영하고, 개발행위 허가 알리미 서비스와 스마트게시판 설치 운영 등 군민의 편리성 제공과 신속한 일처리로 신뢰받는 행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강종만 영광군수는 "군수와 1000여명의 공직자는 군민 여러분과 함께 '풍요롭고 잘 사는 모두가 행복한 영광'을 꿈이 아닌 현실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영광=김창원 기자 kcw@kwangju.co.kr

## 신안군, 금리 7.5% '햇빛아동 장학 적금' 4월 출시

### 농협 등과 협약...4천만원 목돈 마련

신안군이 전국 최초로 최대 4000만원 목돈 마련을 위한 '햇빛아동 장학적금'을 출시한다.

신안군은 최근 신안군청에서 신재생에너지 협동조합연합회와 7개 지역농협 조합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아동들의 복지증진과 학습 등을 위한 '햇빛아동 장학적금'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햇빛아동 장학적금'은 최대 4000만원의 목돈 마련을 목적으로 신안군의 18세 미만인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다.

오는 4월 신안군 북신안-압해-임자-비금-도초-남신안-신안농협에서 출시해 5월까지 두 달 동안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이번 협약은 현재 중앙은행 기준금리 3.5%의 2배 이상인 연 7.5%의 금리를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협동조합 연합회에서 3%, 신안군 7개 지역농협에서 4.5% 금리를 지원하고, 신안군은 적금 상품의 홍보를 적극적으로 수행키로 합의했다.



지난 5일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연합회, 7개 지역농협 조합장 등이 '신안 햇빛아동 장학 적금'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신안군 제공)

박우량 신안군수는 "햇빛아동 장학 적금을 통해 학부모들이 자녀의 학습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 더 나은 교육기회를 제공해

아이들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 목포 요양병원서 감염성 질환 '옴' 발생

### 타 병원 진료 전까지 감염 몰라

### 보건소 "전수조사 등 예방 최선"

고령화로 인해 집단시설의 입소가 늘면서 대표적 감염성 질환인 옴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목포의 한 요양병원에서도 옴 환자가 발생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이 요양병원은 다른 병원에서 옴 진단을 받기 전까지 이 사실조차도 파악하지 못한 데다가 6인 병실까지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옴이 전염성이 강한 감염병임을 감안하면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의 전수 조사 등 전반적인 예방 치료가 필요해 보인다.

목포시 보건소와 환자 가족 등에 따르면 환자 A씨는 목포시 대양동에 소재한 S요양병원에서 3년 넘게 입원해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폐렴 증상을 보여 다른 종합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던 중 옴에 감염됐다는 처방을 받고 충격을 받았다.

환자 A씨가 90세가 넘는 고령인 데다가 치매 초기 증상까지 보이고 있어 판단력이 부족하고 가족 또한 단순한 피부병 정도로 생각했으나 옴에 감염돼 고통을 받았다고 생각하니 죄스러운 마음이 앞서기 때문이다.

옴은 사람에게 끈질기게 달라붙어 번식하는 기생충이자 진드기이다. 전염력이 강하고 극심한 가

려움증을 유발하는데 요양병원에 장기간 입원한 환자에서 감염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 국민 발병률은 줄어들고 있으나 요양시설의 증가와 옴에 대한 인식 부족 등으로 인해 집단발생은 증가 추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환자 A씨 가족은 "평생을 자식을 위해 헌신하며 사시다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의 끝자락에 옴에 감염된지도 모르고 병원에 입원하게 했다는 사실에 자식 된 입장에서 피눈물이 난다"며 더 괴심한 것은 다른 병원에서 옴이라는 진단이 나오기 전까지 S요양병원은 이 사실 자체도 모르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옴은 감염된 사람이 무증상 잠복기 동안 다른 사람을 감염시킬 위험까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 요양병원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 심각성을 더하고 있는 것 같다"며 "수박 겉핥기식의 지도·감독이 아닌 입원환자들의 전수 조사 등 대대적인 예방 또한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목포시 보건소 관계자는 "병실과 환자복 세탁 등 병원 시설에 대해 전반적인 점검을 했으나 특이한 사실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파악이 됐다"며 "앞으로도 지도·감독을 통해 감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목포=장봉선 기자 jbs@kwangju.co.kr

## 진도군 틀니 시술 지원 65세 미만 확대 의료 사각 해소

### 푸른나눔재단 연계 재원 보태

진도군은 지역 의료급여 대상자에게 틀니 시술을 지원하는 등 의료급여 대상자에 대한 복지강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진도군이 지원한 틀니 시술 대상자는 65세 미만으로, 무치악 대상자이다.

65세 이상 의료급여 대상자라면 신청을 통해 누구나 노인 틀니 시술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65세 미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왔다.

이 때문에 40~50대에 치아 결손이 있더라도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비싼 시술비를 부담하기 어려

워 무치악 상태로 지내는 경우가 많았다. 진도군은 65세 미만 지역민들의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이 같은 사례를 발굴하고 지원책을 찾아왔다.

사단법인 푸른나눔재단과 의료지원을 연계하고 '네이버 해피빈' 모금 운동을 통해 진도군장애인복지관에 재원을 보냈다. 또 의신면 찾아가는 복지팀의 사례 관리를 지원했다. 여기에 지역 부부치과의원과 협업을 통해 틀니 시술을 진행할 수 있었다.

2년 전부터 치아 결손을 겪어온 49세의 한 진도군민은 지난해 11월 의료급여 사례 관리 대상자로 선정됐다. 틀니 시술 지원을 받아 그동안 음식물

섭취 때 겪은 진통을 해결할 수 있게 됐다. 그는 "이가 다 빠져 작은 음식도 씹어 넘기기 어려워 너무 힘들었다"며 "틀니 시술을 지원해준 이들에게 감사의 전한다"고 말했다.

진도군은 해마다 의료급여 대상자 중 200명을 선정해 사례 관리를 하며 다양한 복지 지원책을 발굴하고 있다.

진도군 관계자는 "앞으로 대상자와 같은 경제적인 문제로 치과 진료에 어려움이 있는 사례자를 발굴해 나가겠다"며 "진도군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다양한 지원 사업을 벌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진도=이종수 기자 js7777@kwangju.co.kr

### 무안군 전지훈련 열기 후끈

### 스포츠파크·유소년 야구장

### 다음달까지 잇단 동계훈련

무안군은 스포츠파크 주 경기장과 유소년 야구장 등 주요 시설에 대해 다음 달까지 전지훈련이 잇따른다고 10일 밝혔다.

이달 5일부터 31일까지는 화순중학교 야구부 40명이 무안스포츠파크에서 훈련을 한다. 이들은 주 경기장과 유소년 야구장 등 주요 시설을 이용할 계획이다.

다음 달에는 서울·인천지역 유소년 4개 팀 200여 명의 선수단이 무안스포츠파크를 찾는다.

무안군체육회와 무안군은 지난 9일 스포츠파크 훈련장을 찾아 전지 훈련하는 선수단을 격려했다. 무안군은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에 따라 체육시설 사용료를 100% 감면하고 있다.

무안스포츠파크는 주 경기장, 보조축구장, 성인 야구장, 유소년야구장, 실내체육관, 실내수영장,



무안군체육회가 지난 8일 무안스포츠파크에서 전지 훈련하는 화순중 야구부를 격려하고 있다.

골프연습장, 공도장, 테니스장 등 다양한 체육시설을 갖추고 있다.

한편 무안군은 이달 1일 자 조지 개편을 통해 스포츠파크를 신설해 스포츠파크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강기만 무안군 스포츠파크사업장은 "무안스포츠파크는 각종 생활 체육인과 선수 전지훈련 장소로 최적화된 곳"이라며 "전지훈련 유치 확대를 위해 각종 대회를 개최하고 우리 군민의 차별화된 강점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무안=김민준 기자 jun@

## 목포북항 어선물양장 완공 접항 불편 해소

목포지방해양수산청(청장직무대행 이영길)은 '목포북항 어선물양장 건설공사'가 지난해 말 마무리되면서 목포북항 이용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10일 밝혔다.

그동안 목포항은 북항, 남항, 내항(동명동) 물양장 등으로 흩어져, 접안하는 어선들로 불편을 겪어왔다.

목포해수청은 국비 380억원을 투입해 접안시설 413m와 부대시설을 마련했다.

수협위판장이 있는 목포북항으로 배를 대는 어업인들이 원활하게 위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부족한 물양장을 확충했다.

이번 확장시설 준공으로 목포북항 안쪽에 접안하는 선박들의 혼잡도를 낮춰 항 내 안전성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목포해수청 측은 기대했다.

부두 앞면에는 중계단을 설치해 이용자들이 안



목포북항에 건립된 어선물양장 구역(빨간 표시).

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동선을 확보했다. 조명시설도 확충해 물양장 이용자들의 편의를 높이고, 이용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부지도 조성했다.

/목포=박영민 기자 ky@kwangju.co.kr

## 영광군 오늘부터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영광군이 2024년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을 진행한다.

영광군은 11일부터 대마면을 시작으로 17일까지 각 읍면에서 농업인 1000명을 대상으로 10회에 걸쳐 "2024년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은 지난해 농업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새로운 영농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매년 초 실시하는 교육으로, 최근 문제가 되는 병해충 방제 방법 및 주요 작목별 생산비 절감 기술을 중점적으로 지도하는 교육으로 편성했다.

이번 교육은 읍면별로 각 읍면사무소에서 실시할 예정이며 또 기본직불금, 공익직불제 교육과

보건관리 교육도 병행할 계획이다.

읍·면별 교육 일정은 ▲대마면 11일 복지회관 ▲묘량면 11일 복지회관 ▲백수읍 12일 읍사무소 회의실 ▲염산면 12일 복지회관 ▲법성면 15일 커뮤니티센터 ▲홍농읍 15일 커뮤니티센터 ▲영광읍 16일 읍사무소 회의실 ▲불갑면 16일 면사무소 회의실 ▲군서면 17일 복지회관 ▲군남면 17일 면사무소 회의실이다.

고윤자 영광군농업기술센터소장은 "이번 실용교육을 통하여 생산비 절감기술 도입 등 시장개방에 대응할 수 있는 활로를 찾는 교육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영광=김창원 기자 kcw@